

제노비아와 커버데일의 베일: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 나타난 호손의 성 정치학

정진만

(영남대학교 부교수)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나사니엘 호손의 『블라이드데일 로맨스』가 그의 동시대의 지배적 젠더관념과 거리를 두며 여성주의적 비전의 전망을 제시하는지를 다룬다. 우선, 이 글은 제노비아의 목소리가 초반에 여성주의적 대의를 지지하지만 후반부에 회의를 그 것을 무너뜨리는 목소리의 균열에 초점을 맞추어, 제노비아의 내재적 불일치를 밝힌다. 비록 니나 바임의 오랜 주장대로 제노비아가 여성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에 진지해 보일지라도, 주장하건대 그녀는 보수주의적 목소리를 드러내면서 여성다움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여전히 옹호한다. 둘째로 이 글은 젠더 문제에 대해 호손의 페르소나로서의 서술자 커버데일이 보여주는 관점의 심각한 불일치를 추적한다. 제노비아와 유사하게, 그는 걸론 여성주의의 대의를 진정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위장하지만 젠더가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이라는 서술자 자신의 혹은 호손의 보수적이고 경직된 젠더관념을 내밀하게 떠받드는 이면을 드러낸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젠더의 망상인 '키메라'를 쫓아왔던 커버데일의 서사가 부지불식간에 스스로 와해되는 양상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베일을 쓴 커버데일의 성 정치학이 온전히 유지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호손을 둘러싼 역사적 문맥에 대한 고려 이외에, 제노비아와 커버데일이 젠더 이데올로기를 감추고 드러내는 것에 대한 면밀한 읽기, 그리고 커버데일 서사에 대한 해체적 접근은 『블라이드데일 로맨스』 기저의 성 정치학, 더 나아가 젠더에 대한 저자의 논쟁적 태도를 조명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 호손, 『블라이드데일 로맨스』, 제노비아, 커버데일, 성 정치학, 베일, 니나 바임, 젠더, 마가렛 풀러

1. 서론

『블라이드데일 로맨스』(*The Blithedale Romance*)의 「서문」에서 나사니엘 호손(Nathaniel Hawthorne)은 독자들에게 이 소설이 브룩 농장(Brook Farm)에서 저자가 몸소 경험한 이상주의 공동체 생활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이 이상주의 운동과 관련한 주변의 초월주의자들과 작중 인물들을 단순히 일치시켜 이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렇지만 많은 독자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제노비아(Zenobia)를 호손의 시대에 진보적인 여성 가운데 대표적 인물이던 마가렛 풀러(Margaret Fuller)와 연결 짓고(Warren 617; Levine 212), 화자인 마일스 커버데일(Miles Coverdale)을 “호손의 또 다른 자아”(Hawthorne’s *alter ego*)(Van Cromphout 472)로 간주해왔다. 호손의 소설에 대한 여성주의 비평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 니나 바임(Nina Baym)은 호손의 『주홍글씨』의 헤스터 프린과 더불어 이 소설의 제노비아를 호손 당시의 마가렛 풀러처럼 성적 불평등의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려는 강한 열정을 지닌 여성으로 바라보았다. 바임은 일반적으로 호손의 여러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남성 주인공에게는 없는 바람직스럽고 가치 있는 특성들을 나타낸다”(They [Women] represent desirable and valuable qualities lacking in the male protagonist)(“Thwarted Nature” 60)고 주장한다. 그녀는 호손이 동시대 다른 작가들에 비해 여성주의적인 관점과 비전을 아우르는 문학을 독자들에게 제시했다고 해석하며, 이런 그녀의 해석은 이후 호손의 여성주의 비평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은 호손의 소설에 대한 이런 여성주의 해석의 문제와 관련되는 데, 분석의 대상을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 제한시켜 이 소설이 성 평등, 혹은 젠더의 문제에서 얼마만큼 긍정적 비전을 찾을 수 있는지 제노비아, 커버데일에 초점을 맞추어 재고해보려 한다.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 나타나는 성 정치학의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필자는 제노비아와 커버데일이 작품 속에서 젠더의 이슈에 대해 드러내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는 다양한 입장과 사고를 ‘베일’(veil) 이미지와 연관지어 살피려 한다. 왜냐하면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지배적인 이미지가 바로 베일 이미지인데, 이 베일은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상징으로 작용하면서 의미를 형성해내기 때문이다. 호손의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가면무도회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모두 나름의 베일 혹은 가면을 쓰고 있다. 잠시 블라이드데일 공동체를 떠나 도시에 있다가 되돌아오는 커버데일은 블라이드데일 사람들이 가면무도회 여흥을 위해 갖가지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다. 제노비아도 “동양의 왕비”(the Oriental princess)¹⁾의 분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위엄 있는 동양의 왕비, 즉 3세기에 현재의 시리아에 위치한 팔미라의 여왕인 ‘제노비아’라는 “필명, 일종의 가면”(public name; a sort of mask)(8)을 쓰고 지낸다. 제노비아가 이처럼 어떤 베일을 쓰고 있다면 이 베일 혹은 가면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며 그것이 성 정치학의 문제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도발적인 문제제기일 수도 있는데, 과연 제노비아는 바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진지한 여성운동가일까? 아니면 제노비아는 그런 여성운동가의 베일과 가면을 쓴 인물일까? 더불어, 블라이드데일 농장에서 노동의 분화가 여전히 젠더의 구분에 따라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안타까워한다든가, 종교적 지도자로서 여성이 제격이라든가, 혹은 본인은 여성지도자 밑에서 살아가길 간절히 원한다고 힘주어 말하는 화자 커버데일은 동시대인들과 달리 진정으로 그렇게 열린 사고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역시 어떤 베일과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인가? 만일 이들이 각자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젠더 문제에서 갖는 시사점은 상당히 중요해질뿐더러, 적어도 『블라이드데일 로맨스』 작품에서는 바임의 해석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이 글은 제노비아와 커버데일 두 인물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이 쓰고

1) Nathaniel Hawthorne, *The Blithedale Romance*, New York: Penguin, 1983, p.213. 앞으로 이 책의 인용은 본문의 괄호 안에 쪽수만 표기한다.

있는 베일의 성격을 젠더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규명함으로써, 제노비아가 바임의 주장처럼 “정치적으로 급진적이며”(politically radical) (“*The Blithedale Romance*” 552) “에너지의 창조적인 핵심”(creative core of energy)(“*Hawthorne’s Woman*” 258)이라 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여성 운동가가 아니라 진보적 여성으로 위장하는 베일을 쓴 인물임을 주장하려 한다. 또한 이 글은 겉으로는 여성을 옹호하는 것 같지만 정작은 그렇지 않고 젠더의 위계적이고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커버데일의 베일의 이면을 밝히며, 더 나아가 이런 커버데일의 성 정치학적 관점이 화자의 입에서 나온 언급과 재현들을 통해 스스로 와해되는 것을 보여주려 한다. 이런 해체적 독법은 커버데일의 사고에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실체로서의 젠더가 정작은 환영 속의 “키메라들”(chimaeras)(211)이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이 분석은 젠더 문제, 여성주의의 문제에 대한 호손의 입장과 문학적 재현의 문제를 가능해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제노비아의 베일: 제노비아는 저항적인 여성인가?

작품의 후반부에서 커버데일은 블라이드데일에서의 제노비아와 그곳을 벗어나 변화한 모습을 지닌 그녀 가운데 누가 더 진짜 제노비아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내가 그때 가장 진정한 태도 속에 있는 제노비아를 본 것인지, 아니면 블라이드데일에서 그녀가 제시한 모습이 더 진정한 것인지 좀처럼 알 수가 없다”(165). 커버데일을 이토록 혼란에 빠뜨릴 정도로 블라이드데일 밖의 제노비아의 모습은 과거 그곳에 있던 그녀의 검소한 모습과 사뭇 다르게 매우 화려하다. 그녀의 의상은 블라이드데일에서 보여주었던 “의상의 꾸밈없는 검소함”(the homely simplicity of her dress)(44)을 찾아볼 수 없는 “상류층의 실내복”(155)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의 머리에는 블라이드데일에서의 생화가 사라지고 대신 보

석으로 제공된 조화가 꽃혀 있다(163). 의상이나 장신구가 그 인물의 정체성을 잘 표현해준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노비아는 소박한 인물에서 부유한 중산층 신분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인물로 변화하거나 어쩌면 소박한 인물이라는 베일을 벗고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제노비아가 블라이드데일에서 소박한 삶을 살려 했던 것이 어떤 ‘베일’, ‘가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미 작품의 초반부에 암시되고 있다. 커버데일에 따르면, 사일러스 포스터(Silas Foster)처럼 “가난하면서도 자부심 있는 사람”(25)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평등한 형제와 자매 관계”(24) 같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온 사람들, 즉 제노비아를 포함해서 커버데일 같은 사람들은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블라이드데일에 온 것이 아니고 더 안락한 도시와 문명의 생활을 버리고 이곳의 생활을 “선택했다는”(24) 그 가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심 커버데일이 사일러스 포스터 같은 가난한 사람과는 계층이 다른 부유한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태도를 내비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박하고 남루하기까지 한 옷을 입은 블라이드데일의 커버데일, 제노비아는 모두 그들의 진짜 정체성을 가려주는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이다. 커버데일은 제노비아와 자신 같은 이들이 언제든 블라이드데일에서의 흠으로 빛은 잔을 버리고 자신이 살던 기존의 안락한 곳으로 되돌아가 은제 포크를 꺼낼 “우리만의 대안”(our own option)(24)이 있다고 말한다. 커버데일의 서술에 따르면, 제노비아도 프리실라(Priscilla)를 잡다한 재봉 일이나 하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무시하는 계급의식을 내밀히 가지고 있다(33).

이런 점은 제노비아가 추구하는 “평등한 형제와 자매 관계”(24), 즉 성의 평등이라는 이상의 추구가 피상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앨리슨 이스턴(Alison Easton)도 이런 제노비아적 방식의 여성주의가 갖는 문제점, 즉 “계급이 젠더에 대한 충실한 태도를 지워버리는”(Class obliterates gender loyalties)(94) 문제점을 지적한 것을 고려하면,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제노비아가 전개하는 남녀 평등주의 운동은 피부로 와 닿아 경험

하는 절실함이 결여되어 있어 진지하지도 못하고 끈질길 수도 없음이 암시된다. 남부럽지 않게 부유했던 펀틀로이(Fauntleroy) 혹은 그의 가명인 무디(Moodie) 노인은 제노비아의 모친이 되는 첫 부인에 대한 사랑이 “피상적”이었다(182). 그리고 그는 이미 많은 보석으로 부유했기 때문에 그의 딸 제노비아도 그저 빛나는 또 다른 보석에 불과했다(182). 이 점은 태생상 제노비아가 피상적 존재임을 시사한다. 그리고 태생적으로 부유했던 중산층 여성 제노비아는 “여성 및 하층계급을 대변하는 거대한 문화적 상징”(김은형 107)인 프리실라처럼 그보다 훨씬 빈곤한 상태에서 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가는 여성들의 고통에 대해 잘 알기보다는 피상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김은형도 계급적 불평등과 더불어 성차별의 문제에 대한 이상주의 공동체의 개혁 문제에서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제노비아가 개인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정착했을 뿐, 이 공동체의 개혁 운동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116)고 판단한다.

홀링즈워스의 사랑을 얻고자 “아무런 계산 없이” 페미니즘, 자존심, 재산 등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걸고 오로지 그에게 마음을 쏟았던 제노비아는 이 사랑을 어떻게든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이 하층민이라고 무시하던 프리실라를 사기꾼 웨스터벨트에게 넘겨버리고 만다. (김은형 117)

제노비아가 블라이드데일에서 펼친 여성운동의 피상성은 그녀가 어떤 운동을 전개했는지 텍스트에서 전혀 서술되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도 그녀가 13장에서 「은색의 베일」 이야기를 하며 프리실라에게 한 행동에서 잘 드러난다. 「은색의 베일」 이야기를 마치고 ‘구속’을 상징하는 하얀 천을 프리실라에게 씌우는 악의적인 제노비아의 행위는 분명 남녀평등, 여성해방을 목표로 하는 그녀답지 못한 행동이다. 블라이드데일 공동체에서 동료 여성인 프리실라를 자유가 아닌 구속으로 몰아넣으려는 그녀의 악의는 그녀가 여성의 자유, 남녀평등의 이상을 추구하는 여

성운동가로서 얼마만큼 진지한 인물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게 만든다.

바임은 제노비아가 “활기 있고 열정적인 원리”(the energetic and passionate principle)(“*The Blithedale Romance*” 553)를 대변하며, 커다란 힘을 지닌 여성이라 해석하는데(“*Hawthorne’s Woman*” 258), 제노비아의 여성주의적 급진주의를 주장하는 바임에 동조해 제노비아가 가부장 사회에 상당히 위협적이고 저항적인 여성이라 강조하는 입장의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로버트 S. 레빈(Robert S. Levine)은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서 호손이 특히 제노비아에 대한 훌륭한 인물화를 통해 개혁의 급진적 가능성에 활력을 불어넣는다”(In *Blithedale* Hawthorne gives life to radical possibilities of reform, particularly through the magnificent characterization of Zenobia)(224)고 주장한다. 메어리 수잔 슈리버(Mary Suzanne Schriber)에 따르면, 제노비아의 죽음은 홀링스워스(Hollingsworth)로부터 버림받아 좌절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발적인”(accidental)(75) 것이며, 송호림은 제노비아의 죽음으로 홀링스워스가 나약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녀가 변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213).

하지만, 제노비아의 죽음이 홀링스워스에게서 버림받아 초래된 일이 아닐 수 있다는 해석은 다음과 같은 재현들을 고려하면 수용되기 어렵다. 제노비아는 홀링스워스가 만약 사랑이 식은 재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며 프리실라에게 묻는다. 이에 프리실라는 죽을 것이라 말하자, 제노비아는 맞는 말이라 한다. 이 부분은 제노비아가 이런 이유로 자살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녀의 죽음은 홀링스워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큰 원인이었음을 보여준다(220). 그리고 그녀는 죽기 전에 프리실라에게 “그와 함께 가라, 그리고 살아라!”(220)라고 말한다. 이것 역시 그녀가 죽을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이내 커버데일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달라 부탁한다. “그가 나를 죽인 것이라고 그에게 전해주세요!”(Tell him he has murdered me!)(226). 이런 상황을 지켜보았던 커버데일은 제노비아가 재산과 사랑, 희망을 잃고 자

살한 것이 수궁이 가는 일이라고 웨스티벨트(Westervelt)에게 말한다(239). 또한 커버데일은 “단지 사랑이 그녀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241) 자살한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

제노비아가 홀링스워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그녀를 자살로 몰게 된 큰 원인이라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텍스트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강물 속 그녀의 시신이 홀링스워스의 기다란 막대 끝에 찢려 발견 되었을 때, 커버데일은 이렇게 서술한다. “그는 진정으로 그녀의 죽음 전이나 후나 모두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he had [wounded], indeed, both before and after death)(235). 이는 홀링스워스가 제노비아의 사후 그녀의 몸에 상처를 입힌 것뿐 아니라 생전에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음을 뜻한다. 그 마음의 상처는 바로 그가 단지 죄수교화 시설을 세우는데 드는 돈 때문에 금전적으로 그녀를 이용하고 버린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점들로 비추어보면, 분명 그녀가 홀링스워스로부터 버림받아 자살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홀링스워스가 마지막으로 나약하고 거세된 듯한 남성이 되었기 때문에 제노비아가 변화의 힘을 가진 것이라 간주하는 해석 역시 반론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제노비아는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 벌써 남녀평등과 여성의 자유라는 대의 추구에 회의를 느끼고 그것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녀는 “블라이드데일이 진정으로 어리석은 꿈이었다”(227)고 말한다. 제노비아는 과거의 긍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스스로가 여성의 자유를 포기한 노예에 불과함을 커버데일 앞에서 인정한다.

적어도 전 여자가 늘 지녔던 모든 결점을 가진 그런 여자예요. 여자가 대부분 그렇듯이 약하고, 허영심 강하고, 지조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덕을 지녔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충동적이고 직관적이며 정욕에 물들었다는 것 때문이죠. 세습되는 노예가 분명 그런 것처럼, 바르지 못하고 교활하며 부조리하게 선택된 수단들로 내가 본 목전의 하찮은 이득을 무모하게 좇아 전체의 선을 저버리면서 어리석고 얻을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는 저는 천생 여자에 불과해요!

At least, I am a woman—with every fault, it may be, that a woman ever had, weak, vain, unprincipled, (like most of my sex; for our virtues, when we have any, are merely impulsive and intuitive,) passionate, too, and pursuing my foolish and unattainable ends, by indirect and cunning, though absurdly chosen means, as an hereditary bond-slave must—false, moreover, to the whole circle of good, in my reckless truth to the little good I saw before me—but still a woman! (217-18)

제노비아를 위협적, 저항적 인물로 해석하는 송호림도 인정하듯이, 커버데일은 제노비아의 여성개혁가 활동을 서술하지 않는다(212). 이런 점들은 제노비아가 남녀평등사회의 도래라는 대의를 추구하려는 ‘의도’로 죽음을 불사한 저항적 인물이 아니라 ‘저항적인 여성’이라는 가면을 쓴 것임을 한층 더 분명하게 한다.

제노비아가 여성이 겪는 구속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는 부분이 있다. 그녀는 남성중심사회에서 여성들이 침묵을 강요당하는 문제에 대해 소리 높여 비판한다. 이 와중에 그녀는 여성이 글보다는 말에 더 재능이 있다면서, 그 근거로 “여성의 힘은 너무 자연적이고 즉각적이다”(Her [woman’s] power is too natural and immediate)(120)라고 언급한다. 이것은 그녀 역시 스스로 전통적인 젠더 관념의 ‘노예’가 되어 구속을 초래하는 커다란 아이러니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이것은 그녀가 여성이란 “즉각적이고”(120) “직관적이기”(intuitive)(217) 때문에 좀 더 공들여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글보다 말에 적합하다고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녀의 사고에 따르면 남성은 이성, 글(논리적인 것)과 연관되고 여성은 감정, 직관, 말(즉각적인 것, 즉흥적인 것)과 연관된다. 이것이 제노비아의 젠더 관념이다. 그녀는 남녀평등, 여성의 자유를 목표로 싸우는 여성운동가 ‘제노비아’라는 필명의 외양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엔 놀랍게도 남성중심사회에서 아주 오랫동안 유지되어온 관념을 그대로 답습하는 또 다른 그녀가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여성에게 글이 적합지 않다고 말하는 제노바에게서 여성 문인의 증가에 대해 불편한 반응을 보였던 호손의 보수주의적 목소리를 듣는 듯함은 진실로 언캐니하다.

아직 미국 여성이라는 커다란 집단은 가정적인 부류이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으로 조장된 선동이 계속되어 그들의 마음을 집안의 화롯가에서 멀어지게 하면, 여성 문인들이 남성 문인들보다 더 수가 많게 되고 급증할 상황이 오는 것은 자명하다. 물론 여성들이 글을 쓰는 것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고무되어야 하긴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대중의 지원이 부족하지만 그런 제약 속에서 점차 무한정 증가하게 되면) 먹물투성이의 여전사들이 실질적인 압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상대편을 내쫓을 것이고 속치마들이 모든 영역에서 승리를 구가할 것이다.

As yet, the great body of American women are a domestic race; but when a continuance of ill-judged incitements shall have turned their hearts away from the fire-side, there are obvious circumstances which will render female pens more numerous and more prolific than those of men, though but equally encouraged; and (limited of course by the scanty support of the public, but increasing indefinitely within those limits) the ink-stained Amazons will expel their rivals by actual pressure, and petticoats wave triumphant over all the field. (“Mrs. Hutchinson” 167)

위의 언급에서 제시되듯이, 호손은 글 쓰는 여성이 증가하는 동시대의 현상을 언급하면서, 남성 작가들의 위상이 위축될 수 있음을 지극히 우려하고 불안해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으로 조장된 선동”(ill-judged incitements), “먹물투성이의 여전사들”(the ink-stained Amazons), “속치마들”(petticoats) 같은 여성 혐오와 조롱, 비하의 표현에서 잘 드러난다. 이런 심정적 태도 때문에 호손은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서 여성의

권익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제노비아의 입을 통해서 여성이 글에 적합하지 않다는 말을 하게 함으로써 저자 본인의 젠더 관념을 드러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여성의 문제에 대해 호손이 진보적이며 호의적이었다는 바임의 해석 혹은 그녀와 유사한 주장들, 즉 제노비아가 성평등에 적극적이고 저항적인 인물이라는 해석은 지지를 받기 어렵다.

충격적이게도 제노비아는 이렇게 말한다. “남자는 남자답고 신과 같게 해주세요. 여자는 남자가 보기에 당신이 말하는 그런 상태로 되기 십상이에요”(Let man be but manly and godlike, and woman is only too ready to become to him what you say!)(124). 커베데일뿐만 아니라 독자들도 여성을 폄하하고 혐오하는 홀링스워스의 말에 제노비아가 화를 내기는커녕 이처럼 자신을 비하하며 “비굴해 보이는”(looked humbled)(123) 태도로 눈물을 흘리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녀는 여성의 권리신장에 회의적이고, 그것을 포기하게 된다. 화자는 도시에서 그녀가 여성의 권리에 대해 강연할 수 있도록 주선해주려 하자, 그녀는 “여성의 권리는 없다”(Women possess no right)(141)고 잘라 말한다. 그녀는 커베데일이 그녀 자신의 경험(경험을 통한 교훈)을 표현하는 시를 써주길 원한다. 제노비아에 따르면, 그녀의 교훈은 첫째, 여자는 남자들이 격렬하게 투쟁하며 헤쳐나가는 “삶의 전쟁터”에 끼어들어 다치지 말고 뒤로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인습을 조금이라도 벗어난 여성은 비난받고 길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224). 여기에서 제노비아는 여성이 공적 영역에 있으면 해를 입을 수 있으니 회피하고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인습적인 교훈과 더불어, 그런 인습타파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가 없는 패배자의 풀죽은 모습을 드러낸다.

제노비아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커베데일에게 이렇게 말한다. “전 이곳[블라이드데일]이 넌더리가 나요. 그리고 박애주의와 진보의 가면을 쓰는 것에 정말 신물이 나요”(I am weary of this place [Blithedale], and sick to death of *playing at philanthropy and progress*)(227, 강조는

필자의 것). 이것은 그녀가 그동안 여성평등의 진보를 위해 싸우는 사람의 흉내를 내며 ‘블라이드데일’이라는 무대에서 배우처럼 연극을 한 것이고 위장의 베일을 쓴 것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결국, 여성의 가정적인 성격(domesticity)을 주장하는 남성중심 이데올로기가 제노비아의 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고려하면, 그녀는 성의 문제에서 보수적인 호손의 가면, 베일을 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III. 여성을 옹호하는 커버데일의 베일과 젠더 이데올로기

젠더의 문제와 관련해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은 비단 제노비아의 경우만이 아니라 화자 커버데일도 마찬가지이다. 제노비아는 작품의 초기에 일단 여성은 집안일을 하고, 차츰 들판에서 노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16), 블라이드데일에서 여성/남성이 구분된 노동의 영역이 없는 미래를 꿈꾼다. 여기에서 그녀의 언급은 젠더의 상호교차의 유동성과 유연함을 주장하는 마가렛 풀러의 목소리와 비슷하다.

남자와 여자는 거대한 근원적 이원론의 양측을 나타낸다. 그러나 사실 이들은 영원히 상대방으로 건너간다. 액체는 굳어 고체가 되고, 고체는 돌연 액체가 된다. 전적으로 남성적인 남자도 없고 순전히 여성적인 여자도 없는 것이다.

Male and female represent the two sides of the great radical dualism. But, in fact, they are perpetually passing into another. Fluid hardens to solid, solid rushes to fluid. There is no wholly masculine man, no purely feminine woman. (Fuller 369)

마가렛 풀러는 젠더의 본질주의를 비판하는 입장에서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분리되지도 않았을뿐더러 남성도 가정의 영역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Easton 81). 그런 마가렛 폴리의 목소리와 다르지 않은 제노비아의 언급을 들은 커버데일은 “부엌과 집안일이 우리의 체계에서 온전히 제거될 수 없다니 (...) 참으로 안타깝다!”(What a pity (...) that the kitchen, and the house-work generally, cannot be left out of our system altogether!)(16)며 제노비아의 진보적 사고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듯하다. 그러나 노동이 젠더적으로 여전히 분화되어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까워하는 듯한 화자는 과연 남/녀의 젠더 구분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성의 권리신장을 진정성 있게 옹호하는가? T. 월터 허버트(T. Walter Herbert)에 따르면, 적어도 저자 호손은 「허친슨 부인」(“Mrs. Hutchinson”)에서도 언급하듯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젠더의 강력한 구분을 단지 자의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오류라고 간주한다(62).

커버데일이 작품의 초반에 피력한 것으로서 열려있는 듯한 그의 젠더 사고는 불행하게도 이후의 재현들과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주면서 초기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린다. 남/녀에 관한 커버데일의 전통적인 이분법적 사고는 텍스트의 도처에 드러난다. 예컨대 그는 남자가 여자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다(189). 이 진술은 얼핏 보면 동시대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진술하는 것일 수도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남자가 여자아이의 육아에 적합지 않다는 생각을 오히려 대중에게 조장하고 촉구하는 음험한 수행적(performative) 발화일 수 있다. 커버데일의 진술은 자칫, 여자만 가정의 공간에서 육아를 해야만 한다는 대중과 독자의 생각을 더 굳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커버데일은 여성들이 감정적으로 안전부절못하는 상태가 아니면 좀처럼 여성들의 권리와 부당함에 대해 문제 삼으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여성들이 본래 개혁가가 아니라 어떤 커다란 불행의 압력에 의해 그런 개혁가가 되는 것이라 여긴다. 따라서 그는 제노비아가 현재 적개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남성에 대항한 여성의 투쟁을 시작하려는 것이라 판단한다(120-21). 여기에서 그는 여성이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여성의 권리신장

을 위해 싸운다고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화자는 겉으로는 남성보다 여성이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노비아에게 소리 높여 이야기한다(121). 그리고 종교의 분야에서는 특히 여성의 역할이 남성보다 낫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하늘이 영혼에 대한 성직을 여성에게 맡기길 바란다고 언급한다. 신이 여성에게 “심원하고 순수한 종교적 감수성”(the religious sentiment in its utmost depth and purity)을 부여했고, 이것은 모든 남성 신학자들이 뒤섞는 경향이 있는 “천하고 지적인 불순물”(gross, intellectual alloy)을 순화시킨다(121). 표면적으로는 여기에서 화자가 여성이 영적인 감수성을 지녔다고 찬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위장의 베일이며, 정작 그는 남성/여성을 지성/감성(감정)으로 이분화시키는 오래된 젠더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여성이 남성과 직업상의 차별이 없어야 하고 종교적 감수성을 고려해 여성이 성직자로 진출해야 함을 목소리 높여 주장하는 커버데일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 즉 남/녀의 위계적 대립구조와 긴밀히 연관된 젠더 이데올로기를 떠받드는 진짜 모습을 베일로 가리고 있다.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서 커버데일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부각된다.

우선, 커버데일은 여성을 “직관적”(intuitive)(217) 존재로 가정하고 그런 여성의 (직관적) 인식에 대해 내밀히 평가절하한다. 제노비아는 프리실라를 잡다한 재봉일이나 하는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여긴다(33). 이 말을 들은 그는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녀가 프리실라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노비아는 여성들은 “남성적 인식의 둔감함”(the obtuseness of masculine perceptions)(34)이 간과하는 다른 표시들을 보고 판단한다고 언급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프리실라를 대수롭지 않은 존재로 판단하는 제노비아의 직관적인 인식이 어떤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려진다면, 우리는 제노비아에 대한 커버데일(혹은 호손)의 그런 재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다음의 예는 화자가 제노비아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기심으로 뽀뽀 뽀뽀 제노비아를 이용하려던 홀링스워스에게 사랑에 눈멀어 속게 된 제노비아는 그녀가 날카로운 인식을 가진 인물이 아님을 보여준다. 제노비아는 홀링스워스를 위대한 사람이라 여기는데(166), 이렇게 홀링스워스를 찬미하는 그녀의 인식은 커버데일에 따르면, 잘못된 인식이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커버데일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그가 여성을 감성, 감정과 연관된 존재로 재현하면서 그것의 열등함을 암시한다는 점이다. 공동체의 명칭을 정하는 상황에서 화자에 따르면, 제노비아가 제안한 ‘서니 글림프스’(Sunny Glimpse)란 명칭은 너무 섬세하고 감성적이어서 태양 빛에 그을린 남자들이 이런 명칭 아래 일하기엔 부적절했다고 사람들이 결론 내린다(37). 화자는 이런 이름을 생각해내는 것이 “여성 문인들이 저지르는 불가피한 잘못”(a fault inevitable by literary ladies)이라고 말한다(37). 이것은 (화자를 포함해서) 블라이드데일 사람들이 이상주의적인 것은 소위 여성적인 것과 거리가 먼 것이라 여기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커버데일은 남자와 달리 여자는 오직 애정에 모든 것을 기대고 있다고 여기며, 여성의 성공과 좌절이 그 애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에 상당히 안타까워한다(241).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의 태도는 여성이 남자의 애정에 상당히 의존하는 나약한 존재이며 ‘애정’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감정적 존재라는 생각을 은폐하며 동시에 드러내는 베일이다. 더불어, 커버데일은 프리실라가 홀링스워스의 불친절이란 불운만 없으면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것이라 여기는데(242), 여기에서도 여성이 남자의 애정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화자의 가정이 숨어 있다. 이런 점은 여성이 남자와 달리 감정, 감성의 존재라는 생각과 역시 깊이 연루된다.

이처럼 남/녀의 이분법적 젠더 사고와 깊이 연루된 커버데일은 이 대립구도가 또한 위계구도도 갖고 있음을 내비친다. 즉 여성은 남성보다 소극적, 수동적, 복종적인 존재로서 열등하다는 생각이다. 앞서 언급했

듯이, 소설 속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마초적인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홀링스위스에게 제노비아는 비굴한 태도를 보이며 한 마디 저항도 하지 못한다(123).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남자는 남자답고 신과 같게 해주세요. 여자는 남자가 보기에 당신이 말하는 그런 상태로 되기 십상이에요”(124). 이에 화자는 “여성들은 거의 변함없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Women almost invariably behave thus)(124)고 언급하면서, 여자는 저항적으로 보여도 결국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열등한 대상이라는 (독자의) 생각을 끌어내고 또 공고히 해준다.

제노비아를 이렇게 나약한 여성으로 그리는 저자의 숨은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은 홀링스위스에 대한 제노비아의 (사랑의) ‘감정’ 때문에 그녀가 남성우월주의자이자 여성 혐오자인 홀링스위스에게 한 마디 저항도 하지 못하고, 또 사랑의 좌절에 무릎 꿇는 여성적 한계를 보여주려는 것 아닌가?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커버데일(혹은 호손)의 부정적, 회의적 시선, 즉 아무리 개혁적인 의지가 있어 보이는 여성도 복종적으로 되거나 무력한 한계가 있다는 시선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커버데일(혹은 호손)의 성 정치학이다.

마지막으로, 커버데일의 성 정치학, 즉 여성을 가정생활 같은 사적 공간에 제한시키고 남성 중심의 사회를 유지, 강화하려는 이데올로기는 그의 최후 진술에서 잘 드러난다. 화자는 자신이 프리실라를 사랑했다는 마음속 비밀을 작품의 맨 마지막에서 고백한다. “나, 나 자신은 프리실라를 사랑했었다!”(247) 이 마지막 순간 화자는 자신의 ‘베일’, ‘마스크’를 벗어 던지는 것이다. 이 자기폭로(self-revelation)는 그동안 그가 내밀히 프리실라를 사랑한 것에 대한 많은 암시를 뒤늦게 의미 있게 만든다.²⁾ 프리실라를 사랑했다는 화자는 “저는 그 어떤 자유의지도 가져

2) 커버데일은 작품의 여러 곳에서 프리실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내밀히 드러내고 있다. 그는 제노비아가 프리실라의 친구가 될 수 없고 홀링스위스가 프리실라에 대한 애정이 없으며 오로지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는 냉혈한임을 날아가는 한 마리 새에게 말하며, 그 메시지를 프리실라에게 전해 달라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프리실라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신이라고 독백한다

본 적 없어요”(I never have any free-will)(171)라고 말하는 복종적 여성을 좋아했다는 의미에서 그의 남성우월주의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제노비아는 프리실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녀는 수 세기 동안 남성이 만들어낸 여성의 전형적 모습이다”(She is the type of womanhood, such as man has spent centuries in making it)(122). 즉, 프리실라는 소위 여성적 특성들(직관적, 감성적, 감정적, 소극적, 수동적, 복종적 특성들)이 집약된 모습이다. 그녀는 이스턴이 호손 당시의 “‘진정한 여성다움’이라는 중산층 이데올로기, 즉 경건하고, 성적이지 않으며, 복종적이고, 가정적인 여성성”(the bourgeois ideology of ‘True Womanhood’, that is to say a pious, asexual, submissive, domestic femininity“(80)이라 일컫은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데, 화자는 그런 여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르사(Orsagh)는 커버데일이 프리실라를 사랑했다는 말이 거짓이라는 놀라운 해석을 제시한다. 오르사는 커다란 성적 매력을 지닌 제노비아가 커버데일의 진정한 욕망의 대상으로서 커버데일이 그녀에게 강한 이끌림이 있었지만 전통적 여성상에 맞지 않는 그녀를 마녀화하여 반발심으로 억압한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오르사는 프리실라가 커버데일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물론 필자는 제노비아에 대한 커버데일의 이끌림/반발의 양가감정에 대한 심리적 접근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강조하는 점은 커버데일이 제노비아에 대한 욕망이 있더라도 결국 그것을 억압하며, 프리실라를 사랑의 대상으로 선택했다는 점이다.³⁾ 커버데일이 마을 농가의 앞면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

(100). 그는 또 프리실라가 홀링스워스로부터 버림받아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슬픔의 꿈을 꾀다(153). 이것은 그가 무의식적으로 프리실라를 야기하고 사랑한다는 증거이다. 그가 의식적으로는 비록 위장의 베일을 쓰고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 그녀의 안위에 대해 노심초사하는 불안의 감정은 쉽게 속이거나 억압할 수 없는 노릇이다. 정신분석학적으로도 자크 라캉(Jacques Lacan)에 따르면, 불안은 속임수가 아닌 유일한 정동(affect)이다(Evans 11). 이 불안의 감정은 이 작품에서 프리실라에 대한 커버데일의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다.

3) 커버데일이 프리실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이 소설의 맨 마지막 장인 「마일스 커버데일의 고백」(“Miles Coverdale’s Confession”)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참모습은 뒷면에 있다고 언급했듯이(149), 그의 인식에 따르면 어떤 베일의 이면에 진실이 있다. 그가 그동안 프리실라에게 사랑의 감정이 있음을 숨기는 은폐의 베일을 쓰고 있었다면, 그 베일의 이면에 포스트모던적인 또 다른 베일의 위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프리실라를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진실이 있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커버테일도 언급하듯이, 프리실라를 사랑했다는 최종진술은 그동안의 커버테일 자신의 행동—즉, 그가 프리실라를 사랑한 것에 대한 암시가 되는 행동들—과 이야기가 사후적으로 뒤늦게 이해될 수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실마리가 된다. “간단할 것이지만 난 내 고백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통틀어 내 행동에 한 줄기 빛을 던져줄 것이란 점, 그리고 진실로 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임을 안다”(I perceive, moreover, that the confession, brief as it shall be, will throw a gleam of light over my behavior throughout the foregoing incidents, and is, indeed, essential to the full understanding of my story)(247).

우리는 커버테일에게서 로맨스에 대한 그의 태도와 젠더의식의 묘한 상관관계, 병치의 관계를 발견한다. 그는 전면에서는 프리실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감정을 은폐하지만, 그 이면에선 그녀를 늘 노심초사 걱정하며 사랑해왔다. 마찬가지로 그는 앞에서는 과장되었다 싶은 정도로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지만(16, 121), 뒤에서는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여성상을 선호하는 인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와 남성중심주의를 드러낸다. 『블라이드테일 로맨스』에서 커버테일이 상당 부분 저자 호손의

부분에서 커버테일은 프리실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그동안 자신이 참여했던 블라이드테일 공동체의 삶을 최종적으로 되돌아보며 그 이상주의 실현의 실패를 엄숙한 어조로 선언한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독신의 중년이 됐고 이제는 시를 쓰지 않는다는 점도 이야기할뿐더러 자신은 삶의 목표가 없어서 삶이 공허해졌음을 털어놓는다. 그런 후 그는 그동안 프리실라를 사랑했음을 최종적으로 고백한다. 그러므로 그가 엄숙하면서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과거를 되돌아보는 맥락의 이 부분은 독자에게 자신의 가면을 내세울 계기도 아니고 또 그럴 이유도 없다. 왜냐하면 커버테일은 프리실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동안 수많은 위장을 충분히 해왔기 때문이다.

페르소나 역할을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남/녀의 직업의 구분이 있는 것에 대해 제노비아 앞에서 크게 탄식했던 커버데일은 “미국 여성이라는 커다란 집단은 가정적인 부류이다”(“Mrs. Hutchinson” 167)라고 했던 호손을 고려하면 분명 배일을 쓰고 위선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커버데일은 겉보기엔 굴종적이지 않은 여성상을 두둔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지만 이것은 그의 배일과 가면이다. 이 배일 뒤에서 그는 모든 여성이 어쩔 수 없이 굴종적이게 되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고 일반화하면서 독자들이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커버데일은 성평등주의자인 제노비아가 여성의 권리를 뚫고 폭력적으로 억누르려는 마초인 홀링스워스에게 한 마디 저항도 못하고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목격한다. 이것을 보고 커버데일은 “여성들은 거의 변함없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124)는 일반화를 끌어낸다. 여성에 대한 이런 부정적 일반화는 커버데일(혹은 저자 호손)의 음험한 성 정치학을 감추면서도 드러내는 처사이다. 왜냐하면 이런 재현은 한 여성의 행동을 여성 일반의 태도로 성급하게 규정하면서, 진보적 여성의 배일, 위선을 그려 성평등의 주장이 무의미하고 실천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다.⁴⁾

4) 흥미롭게도, 이런 커버데일은 「젊은 굿맨 브라운」(“Young Goodman Brown”)의 주인공 굿맨 브라운과 다르지 않다. 굿맨 브라운은 마을사람들의 위선, 그리고 아내 페이스(Faith)의 위선을 보고 자신의 믿음을 상실한다(241). 그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의 깊이에 대한 회의를 느끼며 자신의 믿음마저 상실하는 것, 즉 믿음의 박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미숙함을 보여주는 이런 굿맨 브라운을 그리는 호손은 분명히 이 인물과 심리적 거리가 멀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서 저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하는 커버데일이 이처럼 미숙한 굿맨 브라운과 다르지 않은 반복을 하고 있다. 제노비아를 보고 여성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회의적 태도를 보이는 커버데일은 텅망 있는 마을사람들과 페이스의 위선을 목격하고 자신도 덩달아 믿음을 포기하는 굿맨 브라운과 다르지 않다.

IV. 커버데일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와해

커버데일은 내밀하게 남녀의 위계적 대립구도에 기초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 확대,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의 진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의미구축을 와해시킬 수 있는 해체적 요소가 그의 진술 자체에 내재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화자에 따르면, 소녀들은 야성적이고, 활기차며, 길들이기 힘들다. 이들은 규칙과 규제가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결국 기존의 틀에 조화롭게 순응하려는 태도를 유지한다. 반면, 남지들과 소년들은 인정된 법과 오래된 전통적 게임규칙에 따르며 상상의 도약을 허용치 않지만, 야성적 본능을 분출시킬 여지가 충분하다(73). 그러나 이런 화자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하다. 화자의 구분을 단순화하면 여성은 야성적이지만 조화를 추구하고, 남성은 규칙을 따르지만 그것을 파괴하는 야수성이 있다는 것이다. 결국 야성과 조화는 양쪽 성 모두의 특성이 되므로 이 진술 자체 속에서 독자는 소녀들과 소년들의 특성을 구분해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면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커버데일은 젊은 남자나 소년들이 기존의 틀 안에 있는 듯하지만, 그것을 거스르고 “야성적인”(wild)(73) 성향이 있다고 서술한다. 그러나 정작 한 젊은 남자로서 커버데일 본인은 ‘기존의 틀’을 고수하려는 보수주의자이다(75, 140-41). 여기에서 커버데일은 젠더의 구분에 대해 본인이 했던 말이 어불성설임을 부지불식간에 드러내는 셈이다. 왜냐하면 비록 커버데일은 애써 여성/남성을 젠더의 특성으로 구분해내려 하지만, 본인의 논리에 따르면 보수주의자 커버데일은 “기존의 틀에 조화롭게 순응하려는 태도를 갖춘”(with harmonious propriety)(73) 여성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커버데일이 남자/여자의 특성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양측의 특성이 서로 구분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는 아이러니를 초래한다. 다음의 예도 마찬가지이다. 커버데일은 블라이드데일 공동체가 각 개인의 개성을 획일화하는 방식으로 집단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의도로

다음과 같이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 중 누군가가 소위 구부러진 막대기라 불릴 수 있는 것처럼 두드러진 개성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의 나뭇단으로 묶기가 쉽지 않다”(Persons of marked individuality—crooked sticks, as some of us might be called—are not exactly the easiest to bind up into a faggot)(63). 커버데일의 이 서술은 이제 남성, 여성을 각각 하나의 나뭇단처럼 강제적으로 묶어 일반화하는 자신의 논리를 무너뜨린다. 커버데일은 따라서 본인이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말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그의 말은 그의 의식을 넘어서 초과한다.

또한 감정, 감성을 여성과 연결시키는 커버데일의 젠더 이분법은 텍스트에 드러나는 또 다른 재현들 때문에 자체적으로 붕괴한다. 앓고 있던 커버데일은 남자가 연민, 공감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41-42). 이것은 연민과 공감이 여성의 영역임을 시사하는 셈이다. 그런데 화자의 이 생각은 다음의 재현 속에서 독자를 의아하게 만든다. 블라이드데일에서 이상주의에 회의를 느껴 잠시 그곳을 벗어나 도시로 돌아온 그는 호텔에 묵으며 맞은편 하숙집을 바라보게 된다. 그 하숙집에 있던 제노비아는 그가 자신을 훑쳐보는 것을 알게 되고 경멸의 눈길을 보내며 커튼을 내린다. 이에 그는 그녀가 “여성이 늘 여자하면 보여주는 그런 부류의 무정한 비난”(one of those *pitiless* rebukes which a woman always has at hand)(159, 필자의 강조)을 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여기에서 여성의 일반적인 “무정한”(pitiless) 특성에 불만을 토로하는 화자는 예전에 그가 여성이란 감정적이고 공감능력이 강한 존재이므로 ‘연민’이 여성의 영역임을 시사했던 자신과 심각한 괴리를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커버데일은 작품의 전반부에서 남자가 본래 아픈 자, 재앙으로 고통받는 자에게 보내는 따스한 관심과 애정, 즉 공감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 화자는 본인 스스로가 공감하는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홀링스워스, 제노비아, 프리실라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된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는 하숙집에 있던 이들을 향한 자신의 관음증적 응시가 “단순한 상스러운 호기심”(“a

mere vulgar curiosity”)(160)이 아니라 그의 관대한 공감하는 능력(“a generous sympathies”)(160), 그리고 사람들의 내면에 숨겨져 있는 비밀까지 파악해낼 수 있는 “섬세한 직관”(delicate intuitions)(160) 때문이라고 변호한다. 레빈도 ‘공감’이 커버데일 서사의 중심적인 문제로 남는다고 강조한다(214). 이 작품에서 커버데일의 주장에 따르면, 한 남성으로서의 그는 ‘공감’, ‘직관’이 뛰어난 자이다. 그런데 이런 서술은 다른 곳에서 공감의 감정, 직관 등을 여성의 영역이라고 의미화했던 그의 재현들이 신빙성을 잃게 만든다. 제노비아에 따르면, 그는 진실로 따뜻한 마음과 공감력을 가진 자이다. “당신[커버데일]은 정말 따뜻한 심장과 공감력이 있어요”(you [Coverdale] have really a heart and sympathies)(226). 여기에서 그는 제노비아의 입을 빌려서 자신의 뛰어난 공감능력을 과시하는 듯한데, 남자가 공감능력이 없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공감능력이 뛰어나도록 직간접적으로 자랑하는 그의 모순적 재현은 공감능력으로 남녀의 젠더를 이분법적으로 매끄럽게 구분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는 셈이다.

V.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호손의 『블라이드데일 로맨스』는 곳곳에 위장의 베일과 가면이 존재한다. 젠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관련된 저자의 목소리는 상당 부분 화자인 커버데일을 통해 드러나는데, 제노비아도 때에 따라 저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저자가 커버데일과 제노비아의 베일, 가면을 쓰고 자유롭게 인물들 속으로 넘나들면서 젠더와 관련된 사고를 독자에게 들려주는 것과 같다. 제노비아와 커버데일은 전통적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하는 ‘위장’의 베일 혹은 가면을 쓰고 있던 것으로 드러난다. 혹은 어찌 보면, 이들은 의식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려 해도 실패한다는 의미에서 ‘베일의 여인’을 엮매던 바로 그 ‘구속’의 베일을 쓰고 있던 것인지도 모른다.

『블라이드데일 로맨스』는 베일의 은유라는 문학적 장치를 통해 여성을 옹호하는 것 같은 제스처를 취하지만 정작은 깎아내리는 성 정치학, 그리고 남성/여성의 위계적 이분법의 이데올로기를 은폐하면서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블라이드데일 로맨스』 텍스트 자체에서 제노비아와 커버데일이 각각 뒤집어쓰고 있는 이런 위장의 베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은폐된 젠더 이분법적 사고를 규명하고, 더 나아가 이런 화자(혹은 저자)의 의도를 오히려 거스르고 와해시킬 수 있는 억압된 부분을 들춰내는 해체적인 독법을 통해 화자(혹은 저자)의 젠더 이데올로기의 맹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바임 같은 비평가들이 비록 이 작품의 제노비아를 성평등 추구에 열정적인 여성으로 간주하며 여성주의적 호손의 비전을 찾으려 하지만 그런 해석은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작품 속에서 커버데일은 블라이드데일의 이상주의 실현에 회의적일 때 도시에 머물다가 돌아온다. 그가 돌아왔을 때 블라이드데일 공동체 사람들은 가면무도회의 여흥을 즐기고 있었다. 이들에게 발견된 커버데일은 자신을 신화 속 괴물 “키메라들”(chimaeras) (211)에 쫓기는 시인으로 묘사한다. 키메라는 주지하다시피 사자, 양, 뱀이 합쳐진 동물로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다. 이 키메라라는 실체가 없으면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꿈과 현실 사이에 있는 망상의 존재, 백일몽에서나 떠올릴 수 있는 존재인데, 이것은 이 소설에 제시되는 ‘젠더’와 아주 흡사하다. 왜냐하면 젠더는 실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여겨져 온 환상이자 관념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서 커버데일이 키메라에게 쫓기고 있지만, 사실은 그가 ‘젠더’라고 하는 키메라를 애써 쫓고 있던 것 아닐까? 또한 「서문」에서 피력된 로맨스 창조의 욕망, 즉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한 미극적 로맨스를 창조하고 싶던 호손의 욕망은 바로 『블라이드데일 로맨스』에서 ‘젠더’라는 환영의 키메라를 쫓던 커버데일의 욕망 아닐까?

■ 참고문헌

- 김은형, 「병리적인 중산층과 로맨스의 실패: 호손의 『블라이드데일 로맨스』를 중심으로」, 『미국소설』 18권 2호, 2011.
- 송호림, 「Woman's Veil and Male Gaze: Conflicts of Conventional and Unconventional Womanhood in Nathaniel Hawthorne's *The Blithedale Romance*」, 『영어영문학 연구』 53권 4호, 2011.
- Baym, Nina, "Hawthorne's Women: The Tyranny of Social Myths," *The Centennial Review* 15.3, 1971.
- _____, "The Blithedale Romance: A Radical Reading," *Th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67.4, 1968.
- _____, "Thwarted Nature: Nathaniel Hawthorne as Feminist," *American Novelists Revisited: Essays in Feminist Criticism*, ed. by Fritz Fleischmann, Boston: G. K. Hall, 1982.
- Easton, Alison, "Hawthorne and the Question of Women,"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thaniel Hawthorne*, ed. by Richard H. Millington, New York: Cambridge UP, 2004.
- Evans, Dylan, *An Introductory Dictionary of Lacanian Psychoanalysis*, Hove and New York: Brunner-Routledge, 1996.
- Fuller, Margaret, *Woman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Ralph Waldo Emerson and Margaret Fuller: Selected Works*, ed. by John Carlos Rowe, Boston an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mpany, 2003.
- Hawthorne, Nathaniel, "Mrs. Hutchinson," *The Scarlet Letter and Other Writings*, ed. by Leland S. Person, New York: W. W. Norton, 2005.
- _____, *The Blithedale Romance*, 1852, New York: Penguin, 1983.
- _____, "Young Goodman Brown," 1836, *The Norton Introduction to Literature*, ed. by Alison Booth, J. Paul Hunter, and Kelly J. Mays,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2006.

- Herbert, T. Walter, "Hawthorne and American Masculinity,"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thaniel Hawthorne*, ed. by Richard H. Millington, New York: Cambridge UP, 2004.
- Levine, Robert S, "Sympathy and Reform in *The Blithedale Romance*," *The Cambridge Companion to Nathaniel Hawthorne*, ed. by Richard H. Millington, New York: Cambridge UP, 2004.
- Orsagh, Jacqueline E, "'Blithedale': Another Lesson for Dark Ladies," *The Centennial Review* 31.3, 1987.
- Schriber, Mary Suzanne, "Justice to Zenobia," *The New England Quarterly* 55.1, 1982.
- Van Cromphout, Gustaaf, "Emerson, Hawthorne, and *The Blithedale Romance*," *The Georgia Review* 25.4, 1971.
- Warren, Austin, "Hawthorne, Margaret Fuller, and 'Nemesis'," *PMLA* 54.2, 1939.

❖ ABSTRACT

Zenobia and Coverdale's Veil: Hawthorne's
Sexual Politics in *The Blithedale Romance*

Jeong, Jin Man
Yeungnam University

This essay examines if Nathaniel Hawthorne's *The Blithedale Romance* suggests a prospective feminist vision distancing from his contemporary dominant belief in gender. First, this essay identifies Zenobia's inner inconsistency, focusing on her voices torn between defending her feminist cause energetically in the beginning and undercutting it skeptically at the latter part of the story. Arguably, despite her seeming eagerness in enhancing women's rights as shown in Nina Baym's longstanding claim, Zenobia continues to advocate the established notion of womanhood, unveiling her conservative voices. Second, this essay investigates the irreparably discordant perspectives that the narrator Coverdale as Hawthorne's persona has assumed toward gender issues. Similar to Zenobia, he discloses his rear view wherein he promotes surreptitiously his or the author's conservative, rigid ideology of gender as undeniably dichotomous and hierarchical, while at the front he is disguised as an earnest supporter of the feminist cause. Also, this essay articulates that Coverdale's disguised sexual politics cannot be sustained safely, by testifying how his narrative that has chased 'chimaera' as an illusion of gender is being disrupted unknowingly by itself. Thus, aside from referring to a historical context around Hawthorne, a close reading concerning Zenobia and Coverdale's (un-)veiling of gender ideology and

a deconstructive approach to Coverdale's narrative would facilitate elucidating the sexual politics underneath *The Blithedale Romance* and Hawthorne's contentious attitude toward gender as well.

Key Words : Hawthorne, *The Blithedale Romance*, Zenobia, Coverdale, sexual politics, veil, Nina Baym, gender, Margaret Fuller

■ 논문접수일 : 2020. 08. 10

■ 심사완료일 : 2020. 09. 13

■ 게재확정일 : 2020. 09. 14

